

안병훈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DP월드투어 2승



연장전서 김주형 제쳐...“한국서 우승하니 보너스 받은 기분”

안병훈(사진)이 고국 땅에서 DP월드투어 2승 고지에 올랐다.

안병훈은 27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코리아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DP월드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총상금 400만달러) 최종일 연장전에서 김주형을 제치고 우승했다.

안병훈은 2015년 BMW 챔피언십 이후 9년 만에 DP월드투어 두 번째 우승을 거뒀다.

이 대회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공동 주관이라 안병훈은 2015년 신한동해오픈에 이어 KPGA 투어에서도 두 번째 우승이다.

우승 상금은 68만 달러(약 9억4000만원)다.

최종 라운드를 공동 선두로 시작한 김주형과 안병훈은 나란히 5언더파 67타를 쳐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4라운드를 마치고 18번 홀(파5)에서 연장전을 치렀다.

연장전에서 안병훈이 두 번째 샷을 그린 근처로 보낸 뒤 가볍게 버디를 잡아냈고, 김주형은 파를 지

키지 못했다.

안병훈은 우승 직후 방송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생각보다 너무 기쁘다. 많은 생각이 스쳤다. 올해는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번 우승은 보너스 같은 기분”이라며 “앞으로 많은 우승의 계기가 되리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는 한때 공동 선두가 5명에 이를 만큼 중반까지 대혼전이였다.

안병훈과 김주형은 필요할 때마다 버디를 잡아내며 선두권을 지켰다.

양투안 로즈네트(프랑스)가 15번 홀(파5)에서 티샷 OB로 더블보기를 적어내며 탈락하고, 히키르 두 구베리아(포르투갈)는 16번 홀(파4) 3퍼트 보기로 떨어져 나가면서 우승 경쟁은 김주형과 안병훈으로 압축됐다.

안병훈이 17번 홀(파3)에서 그린을 놓친 뒤 짧은 파퍼트가 홀을 돌아 나오면서 승부는 1타 앞선

김주형 쪽으로 기울어 듯했다.

게다가 김주형은 18번 홀(파5)에서 티샷이 왼쪽으로 크게 벗어나지만 갤러리아들이 몸으로 막아 불을 멈춰 세운 덕분에 세 번째 샷으로 2.2m 버디 기회를 만들기가 쉬웠다.

그러나 안병훈이 2.5m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며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날아야 우승할 수 있었던 김주형의 버디 퍼트는 홀을 비껴갔다.

18번 홀에서 이어진 연장전에서도 티샷을 때릴 때만 해도 김주형이 유리했다.

김주형의 티샷은 페어웨이 한 가운데 떨어졌고 안병훈이 티샷한 볼은 가까스로 페널티 구역에 피한 러프로 향했다.

하지만 김주형의 두 번째 샷은 그린 앞 벙커 턱에 걸렸고 안병훈은 그린을 살짝 벗어나 어렵지 않게 다음 샷을 칠 수 있는 위치에 멈췄다.

벙커 속에 발을 디딘 불안정한 자세로 친 김주형의 세 번째 샷은 그린을 훌쩍 넘어갔고 네 번 만에 그린에 올라왔지만 2m 파퍼트가 홀을 외면했다.

칩샷으로 2m가 채 되지 않은 버디 기회를 만든 안병훈은 버디 퍼트를 넣고 우승을 확정했다.

안병훈은 “나는 운이 좋았고, 김주형은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선수 가운데 김홍택이 공동 9위(11언더파 277타)로 제편을 세웠다.

김홍택은 이날 3언더파 69타를 쳤다.

김홍택은 이 대회에 걸린 내년 PGA 투어 겸 DP월드투어 제네시스 스킵스랜드 오픈 출전권을 받았다.

김홍택은 “장타력과 샷은 뒤지지 않았다. 쇼트게임이 차이가 났다”면서 “준비를 잘해서 내년 스킵스랜드 오픈에서 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120명 가운데 KPGA 투어 선수는 32명이었으며, 10위 이내는 김홍택 혼자였다.

김홍택 외에는 26위(8언더파 280타) 조우영, 공동 27위(7언더파 281타) 정한밀 등 3명만 30위 이내에 들었다. /연합뉴스

“졌잘싸” 페퍼스...풀세트 접전 끝 안방 첫 승 불발

정관장에 2-3패...승점 1점 획득 29일 흥국생명 상대 원정경기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안방 첫승이 불발됐지만 두 경기 연속 승점을 더하면서 ‘다른 시즌’을 예고했다.

페퍼스는 지난 25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첫 홈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정관장 레드스파이크스에 세트 스코어 2-3(21-25 18-25 25-18 25-23 6-15)으로 패했다. 지난 22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리그 개막을 거둔 페퍼스는 이날 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승점 1을 더했다.

경기 결과는 ‘패배’였지만 페퍼스는 ‘천적’ 정관장을 상대로 분전하며 확실히 이전과 다른 시즌임을 보여줬다.

1세트 4점을 먼저 내주고 시작한 페퍼스는 2세트 7-8 상황까지 정관장과 동점이 되거나 앞서 나가지 못하면서 끌려가는 경기를 연출했다. 이어자비치가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정관장을 추격했다.

1-2세트를 빼앗긴 페퍼스는 포기하지 않고 3-4세트를 잡아냈다. 3세트 접어들어 팀 공격 성공률이 28.6%로 떨어진 정관장에 비해 페퍼스는 60%로 오르면서 집중력을 되찾았다.

세트 스코어 2-2로 시작한 마지막 세트, 위기의 순간 해결사는 역시 ‘캡틴’ 박정아였다. 박정아의 블로킹으로 1점을 선취하며 시작한 5세트에서는 초반 3득점을 해내면서 정관장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림의 리코운 성공으로 만든 5세트 6-8 상황에서 7연속 실점으로 이어져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공격 성공률 50%의 박정아는 이날 21득점을 따냈고 22개 공을 막아내면서 공수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양팀 최다 26점을 올린 정관장 메가의 맹공에도 자비치의 스파이크와 장위의 블로킹이 빛을 발했다.

자비치는 어깨 통증이 계속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높은 타점을 활용한 고공 강타로 41.46%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고, 장위는 블로킹 성공 6득점, 유효 블락 5득점으로 강점인 놀이를 살려 견고한 벽이 돼 주었다.

페퍼스는 박정아의 뒤를 이어 자비치가 20득



페퍼저축은행 페퍼스가 지난 25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첫 홈 경기에서 정관장 레드스파이크스에 세트스코어 2-3패를 당했다.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 높게 뛰어오른 장위. <KOVO 제공>

점, 장위 17득점, 하혜진이 5득점을 보이며 분전했다. 리베로 한다혜 역시 세트 당 3개를 막아내고 42.11%의 리시브 효율을 보였다.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경기 초반 불안해 1, 2세트를 내줬지만 무너지지 않고 잘 따라가서 승점 1점 쟁긴 것 같다”며 “졌잘싸



광주FC의 최경록(왼쪽)이 27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3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파이널B’ 광주FC, 최하위 인천에 무릎

0-1 패...올 시즌 1무 3패 약세

광주FC가 최하위 인천유나이티드에 털리며 참했다.

광주는 27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과의 K리그1 2024 3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24분 무고사에게 골을 내주면서 0-1패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전 구단 상대 승리라는 목표에 도전했던 경기지만 득점 불발로 인천 열세를 이어갔다. 일찍 ‘생존’을 확정하려고 광주의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올 시즌 광주는 인천을 상대로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광주는 지난해에 이어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완성할 수 있었지만 실패로 끝났다. 파이널B 가장 높은 자리인 7위 굳게 지키면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집중하려고 했던 계획도 무산됐다.

인천의 외국인 선수들이 거세게 광주 골대를 두드렸다.

전반 8분 제르소의 슈팅을 골키퍼 김경민이 발로 쳐냈지만 이게 다시 제르소 앞으로 향했다. 마

지막 공세를 막으면서 실점 위기를 넘긴 광주는 전반 13분에는 무고사의 슈팅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무고사의 중거리 슈팅은 광주 골대 맞고 넘어갔다.

전반 22분 제르소가 왼발로 슈팅을 시도했고 다시 한번 김경민이 움직이면서 실점을 막았다.

하지만 2분 뒤 광주의 골대가 열렸다.

제르소가 날린 슈팅을 김경민이 막아냈지만 흐른 볼이 인천 정동운에게 연결됐다. 발로 정동운의 슈팅을 막은 김경민, 하지만 이번에는 무고사 앞으로 공이 향했다.

무고사가 오른발 발리슛으로 다시 한번 광주 골대를 겨냥했고, 이번에는 골망이 흔들렸다.

상대 공세에 고전했던 광주는 후반 반격에 나섰다.

후반 22분 안영규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헤더를 선보였지만 인천 골대를 넘지 못했다. 3분 뒤에는 아사시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허슬도 슈팅 행렬에 가세하는 등 광주는 이날 9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 사냥에 실패하면서 경기는 0-1패로 끝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역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림 시월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년 10월
매주 5-일 17:00
무궁화예술극장

광주상설공연

유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11.17 ~ 12.10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